

2024 새해 이렇게

노관규 순천시장

# 애니메이션 중심 'K-디즈니' 미래산업 육성 박차



### 정원박람회 성공 기업 투자·공모사업 선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승주읍 일원 화순·김해 잇는 남해안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키워낼 것

"2024년은 '월드 디즈니'처럼 순천에도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 'K-디즈니' 신산업을 키워내겠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최근 가진 광주일보와 새해 인터뷰에서 올해 역점 사업으로 인공지능(AI)과 함께 미래로 가는 'K-디즈니 순천' 완성, 미래산업 육성을 마다 준비하는 미래 순천경제, 도시 생태축 복원, 명품 정주 환경 조성 등을 내걸었다.

노 시장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에 대해 삼합(三合)의 합을 강조했다.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 지혜를 내놓는 공직자, 품격있는 시민이 한마음으로 보여준 '삼합의 힘'이라는 것이다. 순천의 성과는 경전선 우회 결정, 올해의 지방자치 CEO상,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특별상 수상 등 외부 평가를 통해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문

화도시 대상지, 거점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도 선정됐다.  
지난해가 정원박람회의 해였다면, 올해는 'K-디즈니'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미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월드 디즈니'처럼 순천에도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 신산업을 키워내자는 것이다.  
순천 전역은 애니메이션 관련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문화콘텐츠 산업 기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청년이 돌아오는 순천을 만들기 위해 지역 대학과 협업을 통해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산관학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노 시장은 "2023정원박람회 성공은 기업 투자, 각종 공모사업 선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영역

확장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와 '생물전환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사업을 계기로 승주읍 일원을 화순과 김해를 잇는 남해안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키워낼 계획이다.  
이달에 착공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우주 발사체 단조집장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순천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전망이다. 또 기업 투자와 신산업 유치를 위해 해룡산단 2-2와 도시첨단산단, 국가산단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국립순천대학교가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글로벌대학30에 최종 선정됐다. 순천시는 대학과 함께 지역의 3대 특화 분야인 스마트팜, 애니메이션, 우주항공-첨단소재를 중심으로 실무형 인재를 적극적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기후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동천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훼손된 습지를 복원해 생물 다양성 보존에도 앞장선다. 아울러 여주만 일원에 해양정원을 조성

해 내륙정원과 해양정원을 동시에 보유한 국내 유일의 도시로 도약을 추진한다.  
도심 곳곳을 싹틔워줄듯 연결하는 육천과 이사천 정비에도 속도를 높인다. 동천의 지류인 육천과 이사천을 정비해 갑작스러운 집중 호우 등 기후 재난에 대비하는 한편, 신대천을 정비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지난해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통합 바이오가스와 시설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을 꼼꼼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자원 순환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발생한 에너지를 시민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의 우수한 아날로그적 요소는 더욱 완성도를 높여가는 한편, AI와 디지털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다가올 미래 역시 꼼꼼히 준비하겠다"며 "아스팔트 도로를 잔디로 덮어 만든 그린아일랜드 등 지역의 다양한 현안역시 원칙을 가지고 방향을 잡아 지혜롭게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시 중마동에 치안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된 조명. (광양시 제공)

## 광양시 중마동·마동 지역 가로등 개선 마무리

광양시는 지난해부터 중마동·마동 등지에서 추진한 취약지역 가로·보안등 개선사업을 최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2023년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22개 시·군 공모를 거쳐 서류평가·현장실사를 받은 9개 시·군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광양시는 '취약지역 가로·보안등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이 뽑혔다. 취약지역 가로·보안등 개선사업에는 도비 5000만원 등 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학부포, 경찰,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주민 참여를 높였다.

주민들은 '지역안전주민참여단'을 구성하고 두 차례의 보고회·간담회를 열었다. 이 사업을 통해 중마동의 안전 취약지역 6곳에 블랙박스 보안등 4등, 가로·보안등 30등, 로고젝터 22개가 설치됐다. 마동지구에는 보안등 6개가 마련됐다. 김진호 광양시 시설관리과장은 "지역안전주민참여단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 치안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주민이 충분히 체감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도 치안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벼농사·원예 등 34억 지원 농업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고흥군 26일까지 신청 접수

고흥군이 오는 26일까지 '2024년 농업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농업 신기술보급과 농업인들의 영농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벼농사, 원예, 축산 등 총 6개 분야 35개 사업 57개소에 34억여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영농을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단체다. 신청서 접수 후 현지 심사와 영농의욕과 새 기술 수용 능력 등을 종합평가하고,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업목적 및 내용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군정소식/고흥소식/공지사항)과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흥군 관계자는 "올해 추진되는 시범사업은 농업경쟁력 향상과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신기술 투입과 과학영농 실천으로 고흥 농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여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여주시 위원 15명 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 발족

여주시가 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여주시는 지난 4일 GS칼텍스 예술마루에서 위원회 발족회를 열고 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전했다. 추진위원회는 김종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전문가 1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전국 단위의 공모와 추천을 통해 미술·전시 운영·건축 등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회는 오는 2025년까지 2년간 활동한다. 추진위원회는 미술관 건립추진 방향, 설계·용역·시공 등 건립, 전시·공간계획·전시공사, 미술관 개관 준비·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심의를 한다. 여주시는 이날 발족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원회 운

영과 여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 현황 등을 설명했다. 여주시립미술관은 지난 2020년 예술마루 망마공원 내 건립부지가 확정됐다. 지난해 5월 문체부의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최종심사에 통과됨에 따라 사업비 280억원을 확보, 오는 2027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67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김종기 여주시 부시장은 "시민들의 숙원인 시립미술관이 남도 예술을 대표하는 시설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립 시작단계부터 세심한 계획 수립과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부장 chkim@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